

《韻略易通》의 聲·韻母 音價考

安 在 哲

(인문대 중어중문학과)

〈目次〉

1. 序 論
2. 聲 母
3. 韻 母
4. 結 論

1. 序 論

董同龢는 漢語音韻史를 先秦時代의 上古音, 切韻系韻書에 반영되어 있는 隋·唐代의 中古音, 《古今韻會舉要》 등에 반영된 宋末의 近代音, 《中原音韻》 등에 반영된 近代音, 中國現代官話와 方言 등을 포함한 現代音 등으로 나누었다.¹⁾ 이러한 漢語音韻史에서, 《韻略易通》은 《中原音韻》을 잇고, 中國現代官話를 여는 北音系韻書의 일종이다.

흔히 漢語語音を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研究의 대상이 되는 語音이 中古 以前일 때는, 그것에서 中古로의 變化를 살펴보고, 中古 以後일 때는 中古에서 그것으로의 變化를 살펴보는 방법을 택하므로, 本稿에서도 中古音を 기준으로 삼되, 같은 北音系韻書인 《中原音韻》의 音韻體系와 現代北方官話의 音韻體系를 비교하여 먼저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에 《韻略易通》의 例字를 하나씩 맞추어가는 방법으로 《韻略易通》이 대표하는 方言의 音韻體系와 變化과

1) 李敦柱의 《漢字學總論》(서울, 博英社, 1979, 468쪽-470쪽)에 張世祿, 錢玄同, 王力, 羅常培, 謝雲飛, 董同龢 등의 漢語音韻史에 대한 分類가 紹介되어 있다.

정을 살핀다.

음의 變化를 살피는데는 董同龢가 밝힌대로 아래의 몇가지 사실에 주의하여야한다.²⁾

- ① 聲母의 變化는 韻母의 介音(開合, 等第)과 聲調의 영향을 받는다.
- ② 韻母의 變化는 聲母의 調音場所의 영향을 받는다.
- ③ 聲調의 變化는 聲母의 清濁의 영향을 받는다.

2. 聲母

《韻略易通》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는 北音系韻書로서는 처음으로 聲母의 標目を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中原音韻》이 同音字는 함께 배열하고, 異音字는 단지 「0」를 써서 구분할 뿐, 聲母의 標目を 定하지 않은 반면, 《韻略易通》은 早梅詩 1首 20字³⁾로써 聲母의 標目を 삼고 있다. 中古의 36字母를 20字로 설정한 것에 대해 作者는 凡例에서,

「篇韻之字，或有音切隱奧，疑似混淆，方言不一，覽者不知孰是，且字母三十有六，犯重者十六，似有惑焉，此編以早梅詩一首，凡二十字爲字母，標題于上；卽各韻平聲字爲子，叶調于下得一字之平聲，其上聲·去聲·入聲字一以貫之，故曰易通，一切字音皆可叶矣」

(《玉篇》과 《廣韻》의 글자는 어떤 것은 音切이 애매하고 의심스럽도록 혼란하다. 方言이 一致하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보는 者는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가 없다. 또한 36字母는 16個가 겹쳐서 잘못 인 도되기 쉽다. 本編은 早梅詩 한 首 20字를 字母로 하여, 위에 標題하고, 각 韻 平聲字를 子로 하고, 아래에 聲調를 맞추어 나가니, 한 글자의 平聲字를 얻으면, 上·去·入聲字는 一以貫之하므로, 易通이라고 하며, 모든 字音이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와 같이 말하고 있다.

위에서 36字母 중 소위 「犯重者十六」이란, 그 당시 北方音의

2)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臺北, 民國 70, 210쪽 참조

3) 東風破早梅, 向暖一枝開, 冰雪無人見, 春從天上來.

일반적특징으로 미루어보아 대개 36字母 중 全濁聲母계열 字母 들⁴⁾을 가르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36字母와 早梅詩 20字의 分合關係를 살펴보는 것은 《韻略易通》의 聲母體系를 알 수 있는 途徑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시도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미 研究된 몇가지 자료를 근거로 가정을 세운다.

학자의 연구⁵⁾에 의하면 中古의 36字母와 《韻略易通》 20聲母의 關係는 표1(부록)과 같은데, 위에서 비교적 상세한 羅常培의 體系를 調音場所와 清濁에 따라 대조표를 만들어 보면 표2(부록)와 같다.

위의 表를 正例로 가정하고 正例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例外로 하며, 이러한 例外에서 正例가 될 수 있는 규칙이 발견되거나, 오히려 正例에 비해 많이 나타날 땐 가정을 수정하기로 한다.

또한 中古音과 《韻略易通》의 비교 뿐만 아니라, 《韻略易通》과 中國現代官話도 비교하기 위하여, 董同龢가 작성한 中古聲母와 中國現代官話聲母의 比較表⁶⁾(표3)를 참고로 한다.

아래의 各論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參考로 《韻略易通》의 早梅詩를 發音部位와 發音方法에 따라 再編成하여 서술한다.

4) 中古에서 中國現代官話로의 全濁聲母字의 變化를 살펴보면: 中國現代官話에서 全濁聲母는 완전히 清音으로 바뀌었는데, 그 중 塞音의 平聲字는 送氣清音으로, 仄聲字는 不送氣清音으로 變化되었다. 聲母는 聲調의 變化에도 영향을 주어, 上聲의 清·次濁聲母字는 第三聲字로 變化한 반면, 全濁聲母字는 第四聲字로 變化하였으며, 平聲의 清聲母字는 모두 第一聲字로 變化한 반면, 全濁聲母字 및 次濁聲母字는 第二聲字로 變化하였다.

5) 羅常培, 〈中原音韻類考〉,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集刊 2本 4份, 臺北, 1932, 437쪽. 趙蔭棠, 〈中原音韻研究〉, 國立北京大學國學季刊 3卷 3號, 北京, 1932, 472쪽 등을 參照하면 早梅詩 한 首에 대한 音價는 早梅詩의 順序에 따라 /t-/ /f-/ /p'-/ /ts-/ /m-/ /x-/ /n-/ /θ-/ /tʃ-/ /k'-/ /p-/ /s-/ /v-/ /ʒ-/ /k-/ /tʃ'-/ /ts'-/ /t'-/ /f-/ /l-/ 등으로 推定하였는데, 吳文祺(《漢語音韻學史略》, 1986年, 59쪽)와 王力(《漢語史稿》, 中華書局, 北京, 1982년) 등은 /t-/ /f-/ /p'-/ /ts-/ /m-/ /x-/ /n-/ /θ-/ /ts-/ /k'-/ /p-/ /s-/ /v-/ /ʒ-/ /k-/ /tʃ'-/ /ts'-/ /t'-/ /f-/ /l-/ 등으로 推定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枝〉〈春〉〈上〉母 등에 細音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細音과 結合하기 힘든 舌尖後音보다는 結合이 쉬운 舌尖面音으로 推定하기로 한다.

6)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臺北, 民國 70 參照.

2.1 雙唇塞·鼻音

中古의 幫·滂·並·明母⁷⁾는 《韻略易通》의 〈氷〉·〈破〉·〈梅〉母⁸⁾로 변입되었다.

2.1.1 〈氷〉

가정에 따르면, 〈氷〉母의 來源은 中古의 幫母字와 並母의 仄聲字이며, 榜·緒·悞·啤·怖·盼·不·彪 등과 같이 送氣와 不送氣가 바뀌거나, 重唇과 輕唇이 바뀐 몇 例外字를 제외하고는 모든 글자가 假定과 合致된다.

2.1.2 〈破〉

가정에 따르면, 〈破〉母의 來源은 中古의 滂母字와 並母의 仄聲字이며, 娉·響·編·甞·倍·否·柸·泡·孀·票·驃·跽 등과 같은 例外字는 僻字로서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假定과 合致된다.

2.1.3 〈梅〉

가정에 따르면, 〈梅〉母의 來源은 中古의 明母字이며, 例外字는 僻字라고 할 수 있는 鉞·抵 등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假定과 合致된다.

7) 中古 36字母(幫·滂·並·明·非·敷·奉·微·端·透·定·泥·知·徹·澄·娘·見·溪·群·疑·精·清·從·心·邪·照·穿·牀·審·禪·影·曉·匣·喻·來·日)의 音價는 董同龢가 《漢語音韻學》(文史哲出版社, 臺北, 民國 70年, 140-154쪽)에서 推定한 /p-/、/p'-/、/b'-/、/m-/、/f-/(/pf-/)、/f'-/(/pf'-/)、/v-/(/bv'-/)、/m-/、/t-/、/t'-/、/d'-/、/n-/、/t-/、/t'-/、/d'-/、/k-/、/k'-/、/g'-/、/ŋ-/、/ts-/、/ts'-/、/dz'-/、/s-/、/z-/、/ʃ-/、/ʃ'-/、/ʒ'-/、/ʃ-/、/ʒ-/、/tʃ-/、/tʃ'-/、/dʒ'-/、/c-/、/z-/、/ʔ-/、/x-/(/h-/)、/ʎ-/(/ʎ'-/)、/ʎ-/(/j-/)、/∅-/、/l-/、/ŋ-/을 參照하며, 高本漢·王力·李榮·周法高·藤堂明保·平山久雄·陸志韋 등이 推定한 音價는 李敦柱의 《漢字學總論》(博英社, 서울, 1994, 600-601쪽)을 參照한다.

8) 《韻略易通》의 聲母 韻目名은 〈 〉을 써서 나타낸다.

2.2 脣齒擦音

中古의 非·敷·奉·微母는 《韻略易通》의 〈風〉·〈無〉母로 변입되었다.

2.2.1 〈風〉

가정에 따르면, 〈風〉母의 來源은 中古의 非·敷·奉母字이며, 例外字는 단지 腕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假定과 合致된다.

2.2.2 〈無〉

가정에 따르면, 〈梅〉母의 來源은 中古의 微母字이며, 惟·維·漉·唯⁹⁾·戊 등과 같이, /v-/와 /ø-/、重脣音과 輕脣音이 혼동되는 소수의 例外字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假定과 合致된다.

2.3 舌尖塞·鼻·邊音

中古의 端·透·定·泥·娘·來母는 《韻略易通》의 〈東〉·〈天〉·〈暖〉·〈來〉母로 변입되었다.

2.3.1 〈東〉

가정에 따르면, 〈東〉母의 來源은 中古의 端母字와 定母의 仄聲字이며, 嗽·淡·韃·鏞·甌 등과 같이, 送氣音과 不送氣音이 바뀐 例外字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글자가 假定과 合致된다.

9) 董同龢(《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臺北, 民國 70, 143쪽)의 설명에 따르면, 中古의 微母字가 中國現代官話로 변화되는 과정은 /ŋ-/>/v-/>/ø-/이라고 했다. 《韻略易通》이 〈無〉母와 〈-〉母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韻略易通》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아직 /v-/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 나열된 惟·維·漉·唯 등과 같은 글자는 以母字이면서도 〈-〉母에 배열되지 않고 오히려 이곳에 배열되었는데, 이러한 예는 現代의 西南官話(太原, 西安)와 吳方言(溫州) 등에도 보인다.

2.3.2 〈天〉

가정에 따르면, 〈天〉母의 來源은 中古의 透母字와 定母의 平聲字이며, 批·驪·濼·邇·袒·疹·蜓·挺·挺·艇·禪·梟·關·鬣·給·挑·窳·詵·洩·錫 등과 같이 꽤 많은 글자가 送氣音과 不送氣音이 혼동되고 있으며, 이렇게 혼동되는 양상이 결코 中國現代官話와 일치하지않는 例가 있는데, 역시 《韻略易通》이 의거한 方言音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例外字의 대부분이 僻字일 뿐만 아니라, 전체에 비하면 그 숫자가 적고, 나머지의 대다수는 假定과 合致된다.

2.3.3 〈暖〉

가정에 따르면, 〈暖〉母의 來源은 中古의 泥·娘母字이며, 紆·恁¹⁰⁾·烏·莩 등의 몇 例外字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假定과 合致된다.

2.3.4 〈來〉

가정에 따르면, 〈來〉母의 來源은 中古의 來母字이며, 한 글자의 例外도 없이 모두 假定과 合致된다.

2.4 舌尖面塞擦·擦音

中古의 照·穿·牀·審·禪·日母는 《韻略易通》의 〈枝〉·〈春〉·〈上〉·〈人〉母로 변입되었다.

10) 紆와 恁은 日母字이므로 〈人〉母에 배열되는 것이 假定과 合致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 배열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오늘날 漢口일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袁家驊 等, 《漢語方言概要》, 文字改革出版社, 北京, 1960, 32쪽, 「北京/z-/在各地的分化: ~漢口只有“恁”“鏡”保存/z-/。其他合口撮口音前和“日”是/θ-/。開口韻前是/n-/:~」)

2.4.1 〈枝〉

가정에 따르면, 〈枝〉母의 來源은 中古의 知·照母字, 澄·牀母의 仄聲字이며, 攄·掙·躡·契·齟·跣·獠·踏·聞·鱗 등의 例外字가 보이는데, 例外의 양상이 복잡하여, 不送氣音과 送氣音, 塞擦音과 擦音, 正齒音과 齒頭·舌頭·牙·喉音이 혼동되어 일관성있는 규칙을 발견할 수 없으며, 假定한 船母의 仄聲字는 한 글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삭제해야하고 나머지만 가정대로 확정한다.

2.4.2 〈春〉

가정에 따르면, 〈春〉母의 來源은 中古의 徹·穿母字와 澄·牀·禪母의 平聲字이며, 陪·咤·焯·陲·籍·駮·嶺·厓·秋·產·滌·暉·翅·匣·歎·啞·甞·徂 등의 例外字가 보이는데, 送氣音과 不送氣音이 혼동될 뿐 아니라, 가정에 따르면 오히려 〈上〉·〈早〉·〈從〉母 등에 배열되어야 하는 例外字가 꽤 많은데, 이는 方言音으로 인한 例外로 보이고, 船母의 平聲字는 단 乘 만이 보일 뿐이므로 확정을 보류하고 나머지는 가정대로 확정한다.

2.4.3 〈上〉

가정에 따르면, 〈上〉母의 來源은 中古의 審母字와 禪母의 仄聲字이며, 禪母 平聲의 많은 글자, 船母 仄聲의 많은 글자, 船母 平聲의 많은 글자와 鶯·灑·士·仕·柿·事·疋·榮·荏·俶·舛·潘·檐·醜·珊·佗·寺 등의 例外字가 있는데, 가정한 中古의 審母字(生·書母字)와 禪母의 仄聲字 외에도, 〈春〉母에서 한 글자(乘) 밖에 없어서 확정을 보류한 船母의 平聲字가 오히려 이곳에 많고, 〈枝〉母에 단 한 글자도 없어서 삭제해 버린 船母의 仄聲字도 오히려 이곳에 많으며, 〈春〉母에 배열된다고 가정한 禪母의 平聲字가 이곳에도 〈春〉母 못지않게 많이 보이므로, 가정을 수정하여 〈上〉母는 船·生·書母字, 禪母의 仄聲字, 禪母의 平聲字 일부로 확정한다.

2.4.4 〈人〉

가정에 따르면, 〈人〉母의 來源은 中古의 日母字이며, 慵·睿·銳와 같은 例外字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假定과 合致된다.

2.5 舌尖塞擦 擦音

中古의 精·淸·從·心·邪母는 《韻略易通》의 〈早〉·〈從〉·〈雪〉母로 변입되었다.

2.5.1 〈早〉

가정에 따르면, 〈早〉母의 來源은 中古의 精母字와 從母의 仄聲字이며, 簇·淸·鬧·浸·趙·疽·雌·狙·慄·賈·暗·曾·滓·蔽·茁·臚 등과 같은 많은 例外字가 보이나, 거의가 僻字이며, 나머지는 대부분이 假定과 合致된다.

2.5.2 〈從〉

가정에 따르면, 〈從〉母의 來源은 中古의 淸母字와 從母의 平聲字이며, 荐·柀·梓·萃·漕·剿·誦·攢·簞·挫·慙·倅·戢·棧와 같은 글자가 送氣音과 不送氣音이 혼동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假定과 合致된다.

2.5.3 〈雪〉

가정에 따르면, 〈雪〉母의 來源은 中古의 心·邪母字이며, 謔·扱·屨·鏗·剝·扱·俟·湫·蜻·晬·蟻·膿와 같은 例外字가 보이는데, 이는 거의가 僻字이며, 나머지는 假定과 合致된다.

2.6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中古의 見·溪·群·疑·影·曉·匣·喻母는 《韻略易通》의 〈見〉·〈開〉·〈向〉·〈一〉母로 변입되었다.

2.6.1 〈見〉

가정에 따르면, 〈見〉母의 來源은 中古의 見母字와 群母의 仄聲字이며, 統·玃·卷·蚺·忪·紅·絳·娟 등과 같이 送氣音과 不送氣音이 혼동되거나, 曉母字와 匣母字가 혼동되는 몇 例外字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假定과 合致된다.

2.6.2 〈開〉

가정에 따르면, 〈開〉母의 來源은 中古의 溪母字와 群母의 平聲字이며, 略·垠·秦·鏢·涼·嚟·醜·茨·跽·悸·揆·阨·饋·績·窶·尫·岐 등의 例外字가 있는데, 〈見〉母에서와 같이 送氣音과 不送氣音이 혼동되거나, 曉母字와 匣母字가 혼동되는 몇 글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假定과 合致된다.

2.6.3 〈向〉

가정에 따르면, 〈向〉母의 來源은 中古의 曉·匣母字이며, 頷·贖·懈·澆·梟·驍·雄·熊·恚·鴟¹¹⁾·芎·換·徇·啤 등의 몇 例外字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假定과 合致된다.

2.6.4 〈一〉

가정에 따르면, 〈一〉母의 來源은 中古의 疑·影·喻母字이며, 恁·

11) 懈·梟·驍와 雄·熊·鴟 등은 見母字와 云母字 임에도 불구하고, 《中原音韻》에서는 각각 /xiai/·/xiau/·/xiun/·/xiun/·/xiau/이며, 中國現代官話에서도 聲母가 모두 /c-/인 것으로 보아 北方語의 반영으로 보인다.

鄉·尚·宥 등의 몇 例外字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假定과 合致된다.

이상의 各論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했던 表는

- ㄱ. 船母의 平聲字는 <春>母를 <上>母로
- ㄴ. 船母의 仄聲字는 <枝>母를 <上>母로
- ㄷ. 禪母의 平聲字는 <春>母를 <春>母과 <上>母로

수정하여 표3(부록)과 같이 확정한다.

위와 같이 확정된 표를 다시 제시된 音價(/t-/ , /f-/ , /p'-/ , /ts-/ , /m-/ , /x-/ , /n-/ , /o-/ , /tʃ-/ , /k'-/ , /p-/ , /s-/ , /v-/ , /ʒ-/ , /k-/ , /tʃ'-/ , /ts'-/ , /t'-/ , /f-/ , /l-/)를 적용하여 작성해 보면 표4(부록)와 같다.

3. 韻 母¹²⁾

中古의 36字母와 비교한 聲母와 같이, 韻母는 中古의 16攝과 비교한다. 그러나 中古의 16攝과 《韻略易通》을 직접 비교한 연구가 없으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中原音韻》의 研究를 이용하기로 한다.

以前の 研究¹³⁾에 의하면, 《韻略易通》의 韻目은, 《中原音韻》의 19韻目 중에서 [魚模]¹⁴⁾韻을 /-u/와 /-y/로 兩分하여, <居魚>韻과 <呼模>韻으로 분리한 20개 韻目이고, 《中原音韻》과 中古 16攝의 관계는 표5(부록)¹⁵⁾과 같다. 위의 두가지 사실을 董同龢가 《漢語音韻學》에서 中古의 韻母와 中國現代官話의 韻母를 비교하

12) 《中原音韻》에서는 中古의 入聲字를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 등으로 註를 달고 陰聲韻에 배열시킨데 반하여, 《韻略易通》은 入聲이란 調名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으며, 切韻系韻書와 같이 入聲字를 陽聲韻에 배열시키고 있다. 여기서는 「入」: 去聲字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3) 王文滄, 《實用音韻學》, 商務印書館, 臺北, 1971, 95쪽 참조

14) 《中原音韻》의 韻目은 []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15) 張世祿, 《中國音韻學史》下, 商務印書館, 臺北, 民國71, 213쪽~214쪽

여 작성한 표(표6·7)16)에 적용시켜, 표8·9(부록)와 같이 가정한
다.

표8·9는 단지 韻目 만을 개괄적으로 분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
론에서는 董同龢의 中古音과 中國現代官話의 韻母 關係圖와 대조하
여 韻目的 音價를 확정하여 새로운 표를 작성하고자 한다.

3.1 〈東洪〉

/-uŋ/, /-iuŋ/

- ① 脣音: 通合一·三17)으로 모두 /-uŋ/이다.
- ② 舌尖塞·鼻·邊音: 通合一·三으로 모두 /-uŋ/이다.
- ③ 舌尖面塞擦·擦音: 通合三으로 모두 /-uŋ/이다.
- ④ 舌尖塞擦·擦音: 通合一·三으로 모두 /-uŋ/이다.
- ⑤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通合一은 /-uŋ/이고, 通合三是 /-iuŋ/이다.

3.2 〈江陽〉

/-aŋ/, /-iaŋ/, /-uaŋ/

- ① 脣音: 宕開一과 江開二의 雙脣音字와 宕合三의 脣齒音字로 모
두 /-aŋ/이다.
- ② 舌尖塞·鼻·邊音: 宕開一과 江開二는 /-aŋ/이고, 宕開三是 /-i
aŋ/이다.
- ③ 舌尖面塞擦·擦音: 江開二의 모든 글자와 宕開三의 莊系字는
中國現代官話音에 근거하여 /-uaŋ/으로 하고, 宕開三의 知·章系字
는 中國現代官話音이 /-aŋ/인데, 이것은 中國現代官話는 捲舌音이

16)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臺北, 民國 70, 217쪽~218쪽, 《韻
略易通》과 비교하기 위하여 本文에서 표를 함께 제시한다.

17) 通攝의 合口一·三等字를 간단히 표기한 것이다.

산생되었으므로, 捲舌音 뒤의 介音 /-i-/가 同化作用에 의해 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韻略易通》은 아직 捲舌音이 產生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莊系字와 분리되어 있으므로 /-ian/이다.

④ 舌尖塞擦·擦音: 宕開一은 /-aŋ/이고, 宕開三은 /-ian/이다..

⑤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宕開一은 /-aŋ/이고, 江開二와 宕開三은 /-ian/이며, 宕合一·三은 /-uaŋ/이다.

3.3 〈眞文〉

/-ən/, /-iən/, /-uən/, /-yən/

① 脣音: 臻合一·三은 각각 雙脣音과 脣齒音 뒤에서 /-ən/이고, 臻開三은 雙脣音 뒤에서 /-iən/이지만, 여기에 〈眞文〉韻 〈氷〉母 上聲인 凜과 〈眞文〉韻 〈破〉母 上聲인 品 등의 深開三이 섞이고 있다. 深開三은 가정에 따르면, 〈侵尋〉韻 〈氷〉母에 배열되어야 하나 이런 常用字가 〈侵尋〉韻에 배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侵尋〉韻에는 아예 〈氷〉·〈破〉·〈風〉母 등의 脣音聲母가 없다. 즉 이곳에 섞인 것은, 脣音韻尾 /-m/이 脣音聲母 /p-/ , /p'-/와의 異化作用으로 말미암아, 이미 /-m/ > /-n/의 변화과정에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가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② 舌尖塞·鼻·邊音: 臻合一은 /-uən/이고, 臻開三은 /-iən/이며, 臻合三은 /-yən/이다.

③ 舌尖面塞擦·擦音: 臻開二의 글자와 臻開三의 莊系字는 /-ən/이며, 臻開三의 知·章系字는 /-iən/이며, 臻合三의 知·章系字는 /-yən/이다.

④ 舌尖塞擦·擦音: 臻開三은 /-iən/이고, 臻合一은 /-uən/이며, 臻合三은 /-yən/이다. 오직 〈眞文〉韻 〈早〉母에서만 臻合一과 臻合三이 섞여 /-yən/이 된다. 이것은 〈眞文〉韻 〈從〉·〈雪〉母 등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中原音韻》도 兩分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韻略易通》이 근거한 方言音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⑤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臻開一은 /-ən/이고, 臻開三은 /-iə

n/이며, 臻合一은 /-uən/이고, 臻合三은 /-yən/이다.

3.4 〈山寒〉

/-an/, /-ian/, /-uan/

① 唇音: 山開二는 雙唇音 뒤에서, 山 咸合三은 唇齒音 뒤에서 /-an/이다. 가정에 따르면, 山合三은 〈先全〉韻에 배열되어야 하나, 唇音은 〈山寒〉韻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咸合三의 唇音이 〈緘咸〉韻에 배열되지 않고, 〈山寒〉韻에 배열된 것은 唇音聲母 /f-/와 唇音韻尾 /-m/의 異化作用에 의해 /-m/이 /-n/으로 변화한 것이다. 〈眞文〉韻의 唇音에서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唇音에서 /-m/韻尾가 /-n/化한 것으로 보아, /-m/韻尾의 /-n/化는 唇音聲母로 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② 舌尖塞·鼻·邊音: 山開一·二로 /-an/이다.

③ 舌尖面塞擦·擦音: 山開二는 /-an/이고, 山合三은 /-uan/이다.

④ 舌尖塞擦·擦音: 山開一로 /-an/이다.

⑤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山開一은 /-an/이고, 山開二는 /-ian/이며, 山合三은 /-uan/이다.

3.5 〈端桓〉

/-on/, /-uon/

① 唇音: 山合一로 /-on/이다.

② 舌尖塞·鼻·邊音: 山合一로 /-uon/이다.

③ 舌尖塞擦·擦音: 山合一로 /-uon/이다.

④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山合一로 /-uon/이다.

3.6 〈先全〉

/-ien/, /-yen/

- ① 唇音: 山開三·四로 /-ien/이다.
- ② 舌尖塞·鼻·邊音: 山開三·四是 /-ien/이고, 山合三의 來母字는 /-yen/이다.
- ③ 舌尖面塞擦·擦音: 山開三의 知·章系字는 /-ien/이고, 山合三의 知·章系字는 /-yen/이다.
- ④ 舌尖塞擦·擦音: 山開三·四是 /-ien/이고, 山合三은 /-yen/이다.
- ⑤ 舌根塞·擦音 및 審聲母: 山開三·四是 /-ien/이고, 山合三·四是 /-yen/이다.

3.7 〈庚晴〉

/-əŋ/, /-iəŋ/, /-uəŋ/, /-yəŋ/

- ① 唇音: 曾開一과 梗開二는 /-əŋ/이고, 曾開三과 梗開三·四是 /-iəŋ/이다.
- ② 舌尖塞·鼻·邊音: 曾開一과 梗開二는 /-əŋ/이고, 曾開三과 梗開四는 /-iəŋ/이다.
- ③ 舌尖面塞擦·擦音: 梗開二는 /-əŋ/이고, 曾·梗開三의 知·章系字는 /-iəŋ/이다.
- ④ 舌尖塞擦·擦音: 曾開一은 /-əŋ/이고, 曾開三과 梗開三·四是 /-iəŋ/이다.
- ⑤ 舌根塞·擦音 및 審聲母: 曾開一과 대부분의 梗開二는 /-əŋ/이고, 일부 梗開二는 介音 /-i-/가 생기고, 일부 梗合三은 介音 /-u-/가 탈락되어서, 曾開三과 梗開三·四와 더불어 /-iəŋ/으로 읽히고, 曾合一과 梗合二는 /-uəŋ/이며, 대부분의 梗合三·四是 /-yəŋ/이다.

3.8 <侵尋>

/-əm/, /-iəm/

- ① 舌尖塞·鼻·邊音: 深開三으로 /-iəm/이다
- ② 舌尖面塞擦·擦音: 深開三의 莊系字는 /-əm/이고, 深開三의 知·章系字는 /-iəm/이다.
- ③ 舌尖塞擦·擦音: 深開三으로 /-iəm/이다.
- ④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深開三으로 /-iəm/이다.

3.9 <緘咸>

/-am/, /-iam/

- ① 舌尖塞·鼻·邊音: 咸開一로 /-am/이다.
- ② 舌尖面塞擦·擦音: 咸開二로 /-am/이다.
- ③ 舌尖塞擦·擦音: 咸開一로 /-am/이다.
- ④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咸開一은 /-am/이고, 咸開二는 /-iam/이다.

3.10 <廉纖>

/-iem/

- ① 舌尖塞·鼻·邊音: 咸開三·四로 /-iem/이다.
- ② 舌尖面塞擦·擦音: 咸開三의 知·章系字로 /-iem/이다.
- ③ 舌尖塞擦·擦音: 咸開三·四로 /-iem/이다.
- ④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咸開三·四로 /-iem/이다.

3.11 <支辭>

/-i/

① 舌尖面塞擦·擦音: 止開三의 莊系字와 일부의 知·章系字로 /-i/이다.

② 舌尖塞擦·擦音: 止開三로 /-i/이다.

3.12 〈西微〉

/-i/, /-ei/, /-uei/

① 唇音: 일부 止開三과 蟹開三·四是 /-i/이고, 나머지 止開三, 蟹合一·三, 止合三 등은 /-uei/이다.

② 舌尖塞·鼻·邊音: 止開三과 蟹開三·四是 /-i/이고, 蟹合一·三, 止合三 등은 /-uei/이다.

③ 舌尖面塞擦·擦音: 止開三의 일부 知·章系字와 蟹開三의 知·章系字는 /-i/이고, 止·蟹合三의 知·照系字는 /-uei/이다.

④ 舌尖塞擦·擦音: 止開三과 蟹開三·四是 /-i/이고, 蟹合一·三과 止合三은 /-uei/이다.

⑤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止開三과 蟹開三·四是 /-i/이고, 蟹合一·三·四와 止合三 등은 /-uei/이다.

3.13 〈居魚〉

/-y/

① 舌尖塞·鼻·邊音: 遇三으로 /-y/이다.

② 舌尖面塞擦·擦音: 遇三의 知·章系字로 /-y/이다.

③ 舌尖塞擦·擦音: 遇三으로 /-y/이다.

④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遇三으로 /-y/이다.

3.14 〈呼模〉

/-u/

① 唇音: 遇合一· 三의 唇音字와 일부 流合一· 三의 唇音字가 섞여 /-u/로 읽힌다. 즉 가정에 의해 〈幽樓〉韻에만 배열되는 것으로 본 流合一· 三의 唇音字는 보완되어야 한다.

② 舌尖塞· 鼻· 邊音: 遇合一로 /-u/이다.

③ 舌尖面塞擦· 擦音: 遇三의 莊系字로 /-u/이다.

④ 舌尖塞擦· 擦音: 遇合一로 /-u/이다.

⑤ 舌根塞· 擦音 및 零聲母: 遇合一로 /-u/이다.

3.15 〈皆來〉

/-ai/, /-iai/, /-uai/

① 唇音: 蟹開二로 /-ai/이다.

② 舌尖塞· 鼻· 邊音: 蟹開一· 二로 /-ai/이다.

③ 舌尖面塞擦· 擦音: 蟹開二는 /-ai/이고, 蟹合二의 知· 莊系字와 止合三의 莊系字는 /-uai/이다.

④ 舌尖塞擦· 擦音: 蟹開一로 /-ai/이다.

⑤ 舌根塞· 擦音 및 零聲母: 蟹開一은 /-ai/이고, 蟹開二는 /-iai/이며, 蟹合三은 /-uai/이다.

3.16 〈蕭豪〉

/-au/, /-iau/

① 唇音: 效開一· 二는 /-au/이고, 效開三은 /-iau/이다.

② 舌尖塞· 鼻· 邊音: 效開一· 二는 /-au/이고, 效開三· 四는 /-iau/이다.

③ 舌尖面塞擦· 擦音: 效開二의 知· 莊系字는 /-au/이고, 效開三

의 知·章系字는 /-iau/이다.

④ 舌尖塞擦·擦音: 效開一은 /-au/이고, 效開三·四是 /-iau/이다.

⑤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效開一은 /-au/이고, 效開二·三·四是 /-iau/이다.

3.17 〈戈何〉

/-o/, /-uo/

① 脣音: 果合一로 /-uo/이다.

② 舌尖塞·鼻·邊音: 果一로 /-uo/이다.

③ 舌尖塞擦·擦音: 果一로 /-uo/이다.

④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果開一은 /-o/이고, 果合一은 /-uo/이다.

3.18 〈家麻〉

/-a/, /-ia/, /-ua/

① 脣音: 假開二로 /-a/이다.

② 舌尖塞·鼻·邊音: 假開二로 /-a/인데, 이곳에는 梗開二와 果開一도 많은 글자가 섞여있다.

③ 舌尖面塞擦·擦音: 假開二是 /-a/이고, 假合二是 /-ua/이다.

④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假開二是 /-ia/이고, 假合二是 /-ua/라 할 수 있는데, 많은 蟹攝字가 보인다. 즉 蟹攝字의 主要元音과 韻尾는 각각 /-a/과 /-i/인데, 中國現代官話와 같이 韻尾 /-i/이 탈락하여 假攝과 섞이는 것이다.

3.19 〈遮蛇〉

/-ie/, /-ye/

- ① 脣音: 假開三의 明母字로 /-ie/이다.
- ② 舌尖塞·鼻·邊音: 假開三의 端母字로 /-ie/이다.
- ③ 舌尖面塞擦·擦音: 假開三의 知·章系字로 /-ie/이다.
- ④ 舌尖塞擦·擦音: 假開三으로 /-ie/이다.
- ⑤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假開三의 以母字는 /-ie/이고, 果三은 /-ye/이다.

3.20 <幽樓>

/-ou/, /-iou/

- ① 脣音: 流合一·三是 /-ou/이고, 流開三是 /-iou/이다.
- ② 舌尖塞·鼻·邊音: 流合一은 /-ou/이고, 流合三是 /-iou/이다.
- ③ 舌尖面塞擦·擦音: 流合三의 莊系字는 /-ou/이고, 知·章系字는 /-iou/이다.
- ④ 舌尖塞擦·擦音: 流合一은 /-ou/이고, 流合三是 /-iou/이다.
- ⑤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流合一은 /-ou/이고, 流三是 /-iou/이다.

위에서 살펴본 韻母의 音價 정리하면 표 10·11을 얻을 수 있다.

4. 結 論

위에서 살펴본 《韻略易通》의 音價를 근거로 아래에서 聲·韻母 方面의 특징을 살펴보면, 聲母方面에서는:

첫째, 中古에서 送氣音과 不送氣音으로 나뉘었던 非·敷母가 合流하여, 中國現代官話와 같이 모두 不送氣音이 되었다.

둘째, 中古의 舌面塞音(知系), 舌面塞擦音(章系), 舌尖面塞擦·擦音

(莊系)이 合流하여 舌尖面塞擦·擦音이 되었다.

셋째, 中古의 舌面鼻音(日母)은 모두 舌尖面擦音이 되었다.

넷째, 舌根鼻音(疑母), 喉塞音(影母), 舌根擦音(云母) 등이 〈以〉母에 섞여 審聲母가 되었다¹⁸⁾.

다섯째, 微母는 切韻時代에는 明母의 일부분으로 雙唇鼻音으로 발음되었으나, 唐末宋初에 이르러 明母는 分化되어 東韻三等字를 제외한 모든 合口三等字는 唇齒鼻音(/m-/)으로 발음되었다. 이후에 北方語에서는 鼻音이 同部位의 唇齒音(/v-/)으로 변화되었고, 다시 半元音(/w-/)으로 변화했다가, 최후에는 元音 /u-/를 형성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韻略易通》은 아직 /v-/의 단계에 있다.

여섯째, 全濁聲母의 平聲字는 次清聲母에 섞여 送氣音이 되었으며, 仄聲字는 全清聲母에 섞여 不送氣音이 되었다. 즉 全濁聲母의 清化현상이 일어났다.

일곱째, 中古의 일부 舌尖塞擦·擦音과 일부 舌根音은 中國現代官話에서는 細音 앞에서 ㄴ蓋音化되었으나, 《韻略易通》에서는 아직 ㄴ蓋音化되지 않았다.

등의 특징이 있고, 韻母方面에서는:

첫째, 止開三(精莊章知系)에서 舌尖元音 /-i-/이 產生되었으며, 中國現代官話가 蟹攝의 知章系에서도 /-i-/이 產生된 것에 비하여 《韻略易通》은 止攝에서만 產生되었으며, 止攝의 일부자(精章知系)까지도 아직 舌尖元音化되지 않은 例가 있다.

둘째, 中國現代官話에서와 같이 開口二等字가 舌根音과 審聲母에서 대체로 介音 /-i-/가 產生되어 細音化되었다.

18) 竺家寧(〈近代漢語審聲母的形成本〉, 中語中文學 4輯, 서울, 1982., 125쪽~126쪽)에 의하면, 中國現代官話의 審聲母의 형성과정을 ①云母의 변입 ②疑·影母의 변입 ③微母, 일부 日母字의 변입'으로 나누어, 《韻略易通》은 그 중 2단계까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셋째, 中國現代官話에 보이는 /a/는 아직 產生되지 않았다.

넷째, 일반적으로 中古의 舌面塞音(知系)과 舌面塞擦音(章系)이 中國現代官話에서는 捲舌音化되었으므로 開 合口三·四等字에서도 모두 介音 /-i-/가 탈락되어 洪音化되었으나, 《韻略易通》에서는 아직 細音을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東洪〉韻의 知·章系字가 洪音인 것과 〈支辭〉韻의 일부 知·章系字가 /-i-/와 결합된 것을 보면 捲舌音化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의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中國現代官話와는 달리 韻尾 /-m/이 아직 전부 /-n/으로 변하지는 않았으나, 唇音字(咸開·合三, 深開三) 뒤에서는 異化作用에 의해 /-m/이 모두 /-n/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中原音韻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侵尋·監咸·廉纖韻에는 唇音이 없으며,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m/韻尾의 /-n/化 현상은 唇音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등의 특징이 있다.

本稿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韻略易通》은 中原音韻이나 中國現代官話에서와 같이 北音系音韻體系를 반영하고 있을 뿐아니라, 비록 中原音韻과 《韻略易通》 및 中國現代官話를 완전히 동일선상의 변화과정으로 볼 수는 없지만, 中原音韻에 비해 더욱 中國現代官話에 가까워진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東洪〉韻에서의 洪·細音의 차이는 舌尖塞·鼻·邊音, 舌尖面塞擦·擦音, 舌尖塞擦·擦音에서 中國現代官話와 같이 더욱 洪音化되었으며, 〈眞文〉韻에서 臻開一은 中原音韻에서는 開口洪音 /-æn/으로, 臻合一이 合口洪音 /-uæn/인 것과 구분되나, 《韻略易通》은 中國現代官話에서와 같이 모두 合口洪音 /-uæn/이며, 〈庚晴〉韻에서 梗開三의 舌根音과 審聲母는 中原音韻이 開口細音 /-iæn/으로 된 것이 많은 반면, 《韻略易通》은 中國現代官話에서와 같이 開口洪音 /-æn/의 예가 많다. 이로써 《韻略易通》은 中原音韻에 비해 더욱 北音化된 韻書라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蘭茂. 《韻略易通》. 康熙本. 廣文書局. 1972
- 陳彭年 等. 《新校宋本廣韻》. 澤存堂藏板本. 弘道文化事業有限公司
- 邢宗訓. 《中原音韻與其他三種元明韻書之比較研究》. 廣文書局. 臺北. 民國 52
-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臺北. 民國 70
- 潘重規. 陳紹棠. 《中國聲韻學》. 臺北東大圖書有限公司.
- 方孝岳. 《漢語語音史概要》. 商務印書館. 香港. 1979
- 謝雲飛. 《中國聲韻學大綱》. 學生書局. 臺北. 1987
- 楊耐思. 《中原音韻音系》.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北京. 1981
- 王 力. 《中國言語學史》. 山西人民出版社. 山西. 1981
- 王 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北京. 1985
- 王 力. 《漢語音韻》. 中華書局. 香港. 1984
- 王 力. 《漢語音韻學》. 中華書局. 北京. 1981
- 王 力. 《漢語史稿》(上·中·下). 中華書局. 北京. 1982
- 王文濤. 《實用音韻學》. 商務印書館. 臺北. 1971
- 袁家驊 等. 《漢語方言概要》. 文字改革出版社. 北京. 1960
- 劉德智. 《音注中原音韻》. 廣文書局. 臺北
- 李敦柱. 《漢字學總論》. 博英社. 서울. 1994
- 張世祿. 《中國音韻學史》(上·下). 商務印書館. 臺北. 民國71 6版
- 陳新雄. 《中原音韻概要》. 學海出版社. 臺北. 1983
- 詹伯慧. 《現代漢語方言》(現代漢語知識叢書). 湖北教育出版社. 新洲. 1985
- 李敦柱. 《漢字學總論》. 博英社. 서울. 1979
- 羅常培. 〈中原音韻聲類考〉.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集刊 2本 4份. 臺北. 1932
- 陸志韋. 〈釋中原音韻〉. 燕京學報 第31期. 1946
- 陸志韋. 〈記蘭茂韻略易通〉. 燕京學報 第32期. 1947
- 楊耐思. 〈近代漢語-m的轉化〉. 語言學論叢. 1981
- 張以仁. 〈由廣韻變到國語的若干聲調與聲母的例外〉. 大陸雜誌 37卷 5

期. 臺北. 1968

丁聲樹. 〈釋否定詞弗不〉.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集刊 外編 1 鍾慶祝蔡元培先生 65歲 論文集. 臺北. 1935

鄭錦全. 〈明清韻書字母的介音與北音顎化源流的探討〉. 書目季刊. 臺北. 1980

鄭再發. 〈漢語音韻史的分期問題〉.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集刊 36本 下冊. 臺北. 1965

趙蔭棠. 〈中原音韻研究〉. 國立北京大學國學季刊 3卷 3號. 北京. 1932

詹秀惠. 〈韻略易通研究〉. 淡江學報 11. 臺北

竺家寧. 〈近代漢語零聲母的形成〉. 中語中文學 4輯. 서울. 1982

許世瑛. 〈從中原音韻-ian與-ien韻母說到國語的-ian韻母〉. 許世瑛先生論文集(一). 弘道文化事業有限公司. 臺北. 1974